

# 이력서 - 오민혁 전기기술자로 4년일했습니다.



**오민혁** 1998년 (25세/만 24세) | 남

✉ igh051@naver.com

☎ 010-3789-8504

☎ 010-3789-8504

🏠 (22803) 인천 서구 가석로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고등학교 졸업	신입	2,400~2,600만원	인천전체 정규직	<a href="https://bonggilb.github.io/portfolio/">https://bonggilb.github.io/portfolio/</a>

## 학력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4.02 ~ 2017.02	졸업	이리공업고등학교	특성화/마이스터고 (전기과)	-

## 경력 신입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16.08 ~ 2020.11 (4년 4개월)	월드웰	수리센터 / 주임 (팀장) / 4년차	인천	3,000만원
<div>담당업무 용접기 파워(전력장비) A/S</div> <div>퇴사사유 감전후유증</div>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a href="https://bonggilb.github.io/portfolio/">https://bonggilb.github.io/portfolio/</a>

## 자기소개서

[발전하고싶은 신입 오민혁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해 유즈맵과 최대 50명 동시접속 게임서버 호스팅을했습니다.(Minecraft,Dayz)  
성인되고 4년동안 전기기기 수리가 직업이었고 복잡한 회로도를 분석하는 일에 재미를 느꼈었어요  
좋아하는 일과 어릴 때 꿈을 찾아 왔습니다.

// 이런 사람 어떠신가요?  
자기소개.onload(=>{

```
1 ( 업무자아=true )=>{
Like = 생각하는것;
console.log( '문제 발생시 푸는법을 알고싶습니다' );
};
```

```
2 ( 오래다니는거좋아요=true ) =>{
근무.min( '4년4개월' );
};
```

```
3 if ( JSP==!null && JS ==!null && React ==!null ){
console.log('감사합니다.');
```

```
}else{
console.log('...');
```

```
};
```

```
};
```

Console : 감사합니다

## [청소하던 고등학생이 23살에 팀장이 되는법]

첫직장 용접기,파워제조회사

일정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아직작업복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를했습니다. 계속 청소를 하다보니 이미 몇번이고 닦아 깨끗해진 바닥을 한번더 청소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현장과장에게 부탁해 작업복없이 흰옷을 입은채 장갑도안끼고 일을 배웠습니다.  
흰옷은 더러워졌고 그모습을 본 부장님이 메인 생산팀으로 저를 넣어주셨어요

생산업무 6달쯤됐을때 사람들이 자재 명칭을 잘못부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지막히 이건 커패시터데요..? 라고말했던게 원래 근무하던분들이 몇년동안 부르던 명칭을 바꾸는게 아니꼬웠는지 개발부장님(지금은 선생님 이라고 부릅니다)에게 가서 이게 커패시터냐고 물어봤고 선생님은 맞다고했습니다.

이날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고 몇달동안 퇴근시간 후 남아서 여러 기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했지만 잘 알려주신덕에 제조사원에서 생산메인QC까지 한순간에 진급할수있었습니다.

일은 어려웠지만 회사에서 만든 장비에 제 이름이 붙어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지금생각해도 너무 벅차고 즐거웠습니다.

QC업무 특성상 고위 관리자에게 보고 해야할것이 많았고 따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2년정도 지나니(총경력3년) 서비스센터 과장님이 급하게 퇴사해야할 일이 생겨 긴급회의가 열렸고

사장님 지시로 제가 서비스센터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입사 할 때부터 장비 수리에 관심이 많았고 고장난기계 한 두개씩 가져와 수리했을정도로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서비스센터 업무를 받았을 땐 수리를 기다리는 장비와 전시회 준비,기존 업무 인수인계 그리고 망가져 있던 업무 시스템을 바로잡기위해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도 반납해 처음한주는 1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해야했던게 아닌데 부서를 관리해야하는 책임감,나를 믿어주는 부서수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나자신을 확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야근이 너무과했는지 서비스센터 출입문관리 권한을 박탈당했고 그이후로 공장장님께서 매일퇴근시간마다 오셔서 문을 잠가줬습니다. 앞으로 한참은 별탈없이 서비스센터는 순항했고. 근무 4년차때 문제가 생깁니다.

형님 한분이 합선을 일으켰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끔있는일이기에 대수롭지않게 생각해 불량 부품교체후 전기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차단기를 잡고있는 저의 왼손을 봤습니다. 절연이 없는 380V 차단기 뒷부분을 잡고 평소 습관, 버릇대로 몸이움직였고

멈추려고 하는 찰나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

눈앞이 번쩍 하면서 왼팔부터 몸통 머리까지 수 억개의 바늘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고통과 함께 몸을움직일수없었고 정신을 차렸을땐 바닥에 쓰러져 부서수형님이 말하는데 귀에 들어 오지가 않았습니다.

장갑은 터져있었고 엄지뒤와 손바닥 검지마디부분 에 흰색무언가 보였습니다.

그게 빠라는걸 알았을때 바로 형님을 뚫고 평소친했던 차장님에게 병원쯤 같이가달라고 했습니다.

엄살피우지 말라는말에 손을 보여줬더니 현장에 차키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러 주셨습니다.

몇주뒤 복귀해 전원 연결하려는데 식은땀이나고

차단기를 잡자 몸이 얼어붙어 말을 거는지도 모르고 몇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적과

가정집 전등을 켜는데 소름이 끼치고, 즉석식품 전자레인지에 돌릴때 펑하는소리에 놀라 넘어지는 저를보고

더이상 이 일을 할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근무조건이 문제가 아니었던 저는 협상에도 퇴사를 하게되었고

어릴때부터 하고싶었지만 가정에 의해 공업의 길을 걸으며 하면안된다고 생각했던 프로그래머가 되고싶었고

관심이 생겨 배우다 보니 그중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유독 제가 좋아하는 일과 많이 닮아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에 맞춰 배워야 하고 계속해서 자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며 임해야 되는것

게다가 관련 업무 대부분이 학력 과 자격증이 아닌 포트폴리오와 능력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년 11월 연희 직업 전문학교에 웹개발자,퍼블리셔,백엔드 융합과정을 신청하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